

W_F_051

적둑베기 일러분 가마귀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경 허난 유시에 어른 죽을 때 아이 죽곡 아이 죽을 때 어른 죽어이.

게난 옛날에이, 저 하늘옥항에서 적둑베기이, 적둑베기렌 헌 건, 가그네 츄레舛례
아이도 죽지 말곡 청년도 죽지 말곡 이제 우우로 촉촉 할망 하르방 아덜 손즈끄지
죽게 허젠, 적둑베길 하늘옥항에서 가마귀신디 보낸 거 아니. 보내난 큼에 큼언 풋
닥풋닥 이승드레 저승서 이승드레 오단, 물을 잡았어이. 아이고 물피나 훈 점 얻엉
먹언 오젠, 그레 풋닥 저레 풋닥 놀아뎅기당 보난 적둑베길 일러분 거라. 일러부난
“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 헤영 좋으코?”

적둑베길 일러부난, 이젠, 땅고낭으로 베엠이가이 멜롯허게 나오난
“나 적둑베기 봐져냐?”

허난, 세 멜롯. (웃음) 그냥 가다가다 누려오단 보난 청태산 마고할망 나꼴이
늙은 할망이 대바지 지어네 소근소근 소근소근 걸없이난
“요놈이 늙은이나 죽으라.”

허멍 발로 탁 차난, 일로 데바지 문짝허게 넘어난 파싹 벌러진 거라. 벌러져
이젠 저 이승 오란

“아이 갈 때 어른도 가라. 어른 갈 때 아이도 가라. 까악까악 까악까악”

경 헤 부난 츄례가 엊어. 츄례가 엊이 어른 죽을 때 아이도 죽곡 아이 죽을 때
어른도 죽곡. 경허난 이제 그 고게 오름 문짝허게 넘어난 대바지 벌러지난 그 사름
이 죽으면은 귀양냇다고이 귀양. 귀양내민 사름 영 헤영 누워난디 사그망추 헤영
쌀성드리헤영 사그망추지. 대바지 벌러진 거나 허벅 벌러진 거나 항 벌러진 거나
헤영이, 영 누워난디 와싹와싹허게 쌀셍드리이라고이 이디도 발 가난 디 머리 가난
디 그 법으로 쌀성을 드리는 거라. 그 할망 고게 넘어난 벌어난 걸로. 그 법으로.

[조사자] 쌀성?

[제보자] 응?

[조사자] 쌀성?

[제보자] 어. 쌀성. 쌀성드리이렌 허죽. 굿헤영. 굿헤영이. 굿헤여그네게 발 가난 디 머리
가난 디 쌀성드리이렌.

- 핵심어 : 하늘옥항, 적둑베기, 가마귀, 물피, 베엠, 청대산 마고할망, 대바지, 쌀성드리, 귀양, 굿